잡학서고 지식의 기록

필요하다는 말의 네 얼굴, 사회적 욕구 분류(Taxonomy of Social Need)

원문 주소

https://www.gklibrarykor.com/13745/

PDF 미리보기 ·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.

동네 주민센터에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. 담당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. 그 서비스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. 전문가가 보기에 위험해 보이는 분, 본인이 힘들다고 말하는 분, 실제로 신청 창구를 찾아온 분이 모두 같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. 이 혼란을 정리해 준 틀이 영국의 사회정책학자 조너선 브래드쇼(Jonathan Bradshaw)가 1972년에 내놓은 사회적 욕구의 분류(Taxonomy of Social Need)입니다. 쉽게 말해 '욕구가 있다'는 말이 실제로는 서로 다른 네 가지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고 짚은 것으로, 규범적·체감적·표출적·비교적 욕구가 그 네 가지입니다. 이 글은 의료 서비스에 관한 논문집에 실린 짧은 글이었지만, 지금도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욕구 조사에서 가장 먼저 꼽히는 고전입니다. 본 자료에서는 욕구를 한 가지로 재면 왜 어긋나는지부터 네 가지 욕구의 뜻과 예시, 그리고 네 가지를 겹쳐 읽는 방법과 한계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. 욕구를 네 가지 눈으로 보다 욕구라는 말이 하나로는 부족한 이유 복지 서비스는 대체로